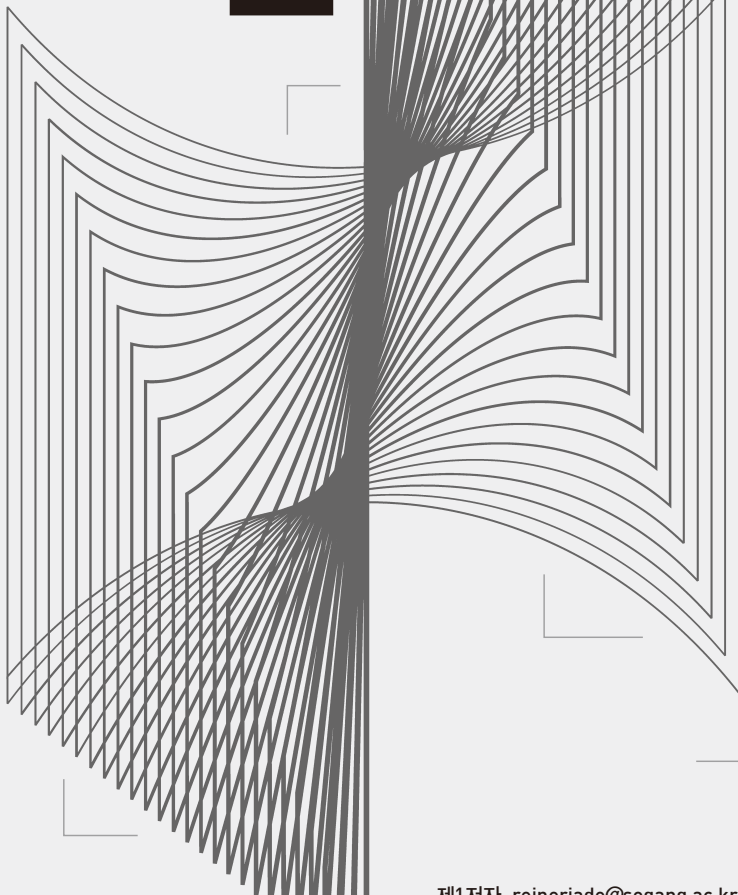


논단

가톨릭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인간연구』 제57호

(2025/겨울)



제1저자, reinerjade@sogang.ac.kr

대안적 시간론으로서의 에피쿠로스주의

고전적 시간론과의 대조와 근현대적 변용을 중심으로

최정민(서강대학교 · 철학 · 박사과정)

<https://doi.org/10.21738/JHS.2025.12.57.55>

I. 서론

■ 그동안 에피쿠로스와 루크레티우스로 대표되는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의 사유는 주로 쾌락주의적 윤리학의 측면에서 다루어졌으나, 에피쿠로스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원자론적 체계는 자연철학에 대한 혁신적인 사유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가 가장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에피쿠로스주의의 시간론인데, 시간에 대한 기존 철학사의 이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또 다른 시간 이론의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의 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언명은 불완전하며 파편적이기 때문에 후대 철학자들의 에피쿠로스주의 시간론에 대한 해석을 통해 원자론적 구도 속에서 시간에 대한 착상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양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 철학자들은 모두 자신의 고유한 사상적 입장에 근거하여 에피쿠로스주의적 시간론을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작업은 동시에 이 후대 철학자들이 시간에 대한 비고전적 이해를 배경으로 두고 있음을 밝혀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의 목적은 에피쿠로스주의적 원자론에 대한 마르크스, 들뢰즈, 세르의 해석이 에피쿠로스주

의적 원자론을 어떻게 계승하고 변용시켜왔는지를 ‘시간’이라는 제재를 중심으로 탐구해보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가장 먼저 에피쿠로스주의 시간 이론과 대비되는 고전적 시간론의 계측 가능성, 연속성, 보편성이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뉴턴의 시간 이론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는 에피쿠로스주의적 시간 이론이 주류적 철학의 계보에서 드러나는 시간에 대한 사유에 비해 명백한 이질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통념적 시간론과 대조되는 계측 불가능성, 불연속성, 다중성을 에피쿠로스주의적 시간 이론의 특성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에피쿠로스주의적 원자론에 대한 근현대 철학자들의 해석이 에피쿠로스주의 시간 이론을 어떻게 변용시켜 형상화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그리하여 에피쿠로스의 시간 이론의 비고전적 성격이 각 철학자들 고유의 사상적 입장을 통해 사물에 귀속되는 사물의 속성으로서의 시간에 대한 이해를 도출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나아가 이러한 이해가 현대 물리학의 시간에 대한 이해와도 연계될 수 있다는 추가적 함의를 읽어내고자 한다.

* 지금까지 마르크스, 들뢰즈, 세르 각각의 철학자들의 에피쿠로스주의적 원자론에 대한 해석을 다루는 연구는 수행되어 왔으나, 그러한 철학자들의 시간에 대한 해석을 에피쿠로스주의의 시간론과 연계지어 구체적인 성격을 규정하고자 한 시도는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독창성을 찾을 수 있다.

II. 고전적 시간 이론에 대한 예비적 고찰

■ 가장 먼저 조명해볼 고전적 시간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론이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은 시간에 대한 단편적인 사유의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으며, 플라톤의 시간론은 시간을 이데아적 영원의 모상으로 규정하는 것에 그친다는 점에서 사물의 운동을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론은 시간을 현상계의 사물의 운동으로부터 정의하여 시간의 일반적인 특성을 도출해낸다는 점에서 탐구의 가치가 있다. 이 절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시간론의 특성을 계측가능성, 연속성, 보편성으로 제시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에 대한 정의를 “앞과 뒤를 따르는 운동의 수”***라고 제시한다. 즉 시간은 운동의 앞과 뒤 사이의 차이를 인지함으로써 측정된 수의 축적과 같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떠한 동체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고 할 때, 도로의 특정 지점 A와 그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진 다른 지점 B를 상정할 수 있다. 만일 동체가 지점 A에서 B로 이동했다면 필연적으로 시간이 경

* 고전적인 시간 이론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답변은 시간 이론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신화나 문학 등에서 나타나는 시간에 대한 고대적 사유까지도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주 목적은 에피쿠로스주의적 시간론의 철학사적 의의를 조명하는 것이기에 논의의 범위를 서양 철학사 중 주류적 위치를 차지했던 시간론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 플라톤의 시간론은 필연적으로 시간을 시간에 적용되는 사물들과 분리되어 현존하는 독립적이고 신비로운 실체와 같은 것으로 상정하는 방향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거부 대상이 된다. (Julia Annas, “Aristotle, Number, and Time”, *The Philosophical Quarterly*, 25/99(1975), p.102).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시간의 기준으로 천체의 영원한 운동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플라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 아리스토텔레스, 『자연학』, 유재민 역, 『아리스토텔레스 선집』, 길, 2020, 219b1 (222쪽). (이후 모든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에 대한 인용은 베커 번호를 사용하되 참조한 번역본의 쪽수를 병기한다.)

과한다. 이때 지점 A를 ‘이전’으로, 지점 B를 ‘이후’로 칭하고 A와 B 사이의 차이를 일, 월, 년 등의 단위에 따라 환산한 것이 시간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시간은 운동으로부터 구성된 차이를 측정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운동을 측정하는 기본 단위, 곧 운동의 측도이다. “시간이 변화와 변화 중인 존재의 측도(metron)이며, 시간이 모든 변화를 측정해낼 어떤 변화를 정의함으로써 변화를 측정하기 때문에 …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다음을 의미한다. 곧 그 존재가 시간에 의해 측정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가 시간의 계측가능성을 긍정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운동은 반드시 공간상의 일정한 크기를 점유하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크기는 무한하게 나누어질 수 있고, 나눌 수 없는 부분으로 구성될 수 없다.** 만일 나눌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나눌 수 없는 부분 중에서 운동하는 것의 전후로 나눌 수 없는 것을 다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신 운동하는 중에 있는 것이 나눌 수 없는 부분을 단번에 주파해간다고 한다면 운동하고 있는 것은 정지해 있는 것과 구별되지 않으며, 이 또한 모순이다. 그런데 나눌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진 것은 연속적일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속을 “두 접촉하

* Aristotle, *Physics: Books III and IV*, trans. Edward Husse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220b32–221a9 (p.47).

** Aristotle, *Physics*, trans. C. D. C. Reeve,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Company, 2018, 231b18–232a17 (p.103).

*** Ibid., 231a29–231b6 (p.102).

는 점의 극한(peras)이 하나일 때**로 정의한다. 나눌 수 없는 것의 경우 전체의 일부만이 연속될 수 없기 때문에, 나눌 수 없는 부분들이 서로 연속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두 부분이 완전히 겹칠 때 뿐이다. 그러나 이때 두 부분은 더 이상 두 부분이 아니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속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전제가 성립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눌 수 있는 크기는 연속적이다. 따라서 연속적인 크기에 따라 구성되는 공간도 연속적이고, 연속적인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의 수인 시간 또한 연속적이다.

그런데 시간이 운동에 의거하여 주어진다면, 각각의 동체의 운동 양태의 차이에 따라 시간의 흐름 또한 달라지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의문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각 사물의 변화와 운동은 변하는 것 자체 안에만 있거나 움직이고 변하는 것 자체가 마침 있게 되는 곳에 있다. 하지만 시간은 어디에나 모든 것에 걸쳐 똑같이 있다. 게다가 변화는 더 빠르거나 더 느리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이렇다. 느림과 빠름은 시간에 의해 정해진다. 즉 적은 시간에 많이 움직이는 것은 빠르고, 많은 시간에 적게 움직이는 것은 느리다. 하지만 시간은 시간에 의해 정해지지 않는다.***

변화와 운동이 각각의 사물마다 느리거나 빠르게 진행된다

* Ibid., 227a10-12 (p.93).

** Ibid., 231b5-6 (p.102).

*** 아리스토텔레스, 『자연학』, 유재민 역, 『아리스토텔레스 선집』, 길, 2020, 218b10-17 (219~220쪽).

라도 시간의 흐름은 항상 동일하다. 이는 시간이 운동의 속도를 결정하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거리를 보다 짧은 시간 안에 주파하는 동체는 보다 긴 시간 안에 주파하는 동체보다 더 빠르는데, 이때 시간은 두 동체의 속도 차이를 결정지어주는 기준으로 기능하지만 시간이 그 자체로 빠르거나 느리게 흐르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단일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면 각각의 운동에 대해 대응되는 시간은 항상 하나이다. 따라서 만일 각각의 시간에 대해 대응되는 운동 또한 하나라면, 시간과 운동 간의 일대일 대응관계, 나아가 대칭적 정의의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컨대 어떤 물체가 일정 거리를 10초 안에 주파했다고 한다면, 그 시간 동안 이루어진 물체의 운동은 동일한 속도로 1초만큼 일정 거리를 주파하는 단위 운동이 10번 연속적으로 이어진 것과 같다. 운동의 단위로서의 시간이 일정한 양의 운동의 배수로 정의되기 때문에, 역으로 일정한 양의 운동을 시간을 통해 정의하는 것 또한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운동의 양태는 각각의 사물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을 통해 운동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운동 중에서 보편적이고 균일한 시간을 가장 잘 정의해줄 수 있는 표준적인 척도에 해당하는 운동을 찾을 필요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그러한 운동은 바로 모든 운동 중 가장 균일한 운동인 최외각 천구의 원운동이다.** 천구의 원운동

* “변화를 시간으로 측정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시간을 변화로 측정하는데, 각자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이다.” (Aristotle, *Physics: Books III and IV*, trans. Edward Husse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220b14–15 (pp.46~47).)

** Ibid., 223b20–24 (p.53). 로어크(2011)에 따르면 천구의 운동이 표준 척도로 기능할 수 있는 이유는

은 시작점과 종결점을 가지지 않으며 가속되거나 감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균일한 흐름을 가진다. 천구의 운동은 가장 기초적이고 단순한 운동으로 어느 시점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예정이며,* 그러므로 불변한다. 이렇게 유일하고 항구적인 천구의 원운동을 일, 월, 년 등의 특정한 여러 시간 단위들로 나누고 구분한 것이 시간을 이룬다. 예컨대 해가 지평선에서 떴다가 지게 되면 하루가 지나가고,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번 돌면 한 달이 지나가는 식이다.**

결론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이 계측가능하며, 연속적이며, 보편적이고 균일하다는 것을 역설한다. 시간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의 성격에 대한 규정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견지된다. 대표적으로 뉴턴은 실제적인 시간이 “외부의 어떤 기준과도

그 외에도 천구가 지구상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보이기 때문이며, 그리고 천체는 변화하는 자상의 물질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불변하고 순수한 에테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에테르는 정지하는 일 없이 항상 운동하며 그 운동 양태가 바로 원운동이다. (Tony Roark, *Aristotle on Time: A Study of the Phys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p.188~189)

* Aristotle, *De Caelo*, trans. C. D. C. Reeve,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Company, 2020, Vol. II, Chap.6. 또한 천구의 원운동은 가장 빠른 운동, 가장 적은 시간이 걸리는 운동이기에 다른 운동들을 파악하는 원리이자 척도로서 기능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김진성 역, 이재이 북스, 2007, 1053a8-12 (415쪽)) 쿠프(2005)에 따르면 측정의 척도가 되는 단위가 최소화될 때 측정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은 시간에 같은 거리를 더 많이 주파할 수 있는 원운동이 다른 모든 운동의 척도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Ursula Coope, *Time for Aristotle: Physics IV.10-1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103 & 106) 원운동의 속도는 원의 크기에 비례하므로, 가장 반경이 큰 최외각 천구의 회전 운동이 가장 빠르다. (Aristotle, *De Caelo*, trans. C. D. C. Reeve,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Company, 2020, 289b8-9 (p.45).

**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를 중심에 두고 그 주위를 회전하는 것이 천체의 원운동이라고 보는 천동설적 우주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같은 논리를 연 단위로 확장하면 ‘해가 지구를 한 바퀴 돌면 일 년이 지난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무관하며, 스스로 균일하게 흐르는”^{*} 균일한 절대 시간이라고 보았다. 또한 뉴턴의 절대 시간은 물체의 운동을 기준으로 삼아 측정한 상대 시간에 천문학 방정식을 사용할 때 계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측가능하며,^{**} 모든 곳에서 연속적으로 흐른다.^{***}

더불어 칸트 또한 시간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해서는 뉴턴을 비판하지만, 칸트의 시간론에서도 상기한 고전적 시간론의 핵심적 특성들을 찾아볼 수 있다.^{****} 칸트에 따르면 모든 사물들은 감각적 감성을 통해 경험된 사물에 대한 직관인 한에서만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사물들에 대한 직관을 가능하게 해 주는 아프리오리(a priori)적 조건으로서의 순수 형식이 바로 시간과 공간이다. 그러므로 뉴턴의 절대 시간과 같이 객관적으로 현존하는 시간은 지식을 수립할 수 없는 물자체적 존재와 같은 것으로 치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칸트의 시간론에서도 고전적 시간론의 계측가능성, 연속성, 균일성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이는 칸트가 그 형성 과정을 해명하고자 했던 지식이 곧 뉴턴 물리학을 통해 설명되는 대상의 운동에 해당하기에 칸트의 시간 규정 또한 뉴턴 물리학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간의 성격에 합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

* 아이작 뉴턴, 『프린키피아』, 박병철 역, 휴머니스트, 2023, 53쪽.

** 위의 책, 56쪽.

*** 위의 책, 932쪽.

**** 익명의 심사위원께서는 감성직관의 내적 형식인 칸트의 시간론과 외적 실재로 드러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론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 논문의 짧은 단락을 통해 다루어지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셨다. 필자 또한 이를 수용하여 칸트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론을 동일시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주장이 아닌 위에서 논한 고전적 시간론의 전형적 특성을 칸트에서도 그대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보는 것으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기 때문이다.* 이러한 칸트의 서술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도식론이다. 인식의 성립을 위해 필요한 감성과 지성의 이질성으로 인해 감성적 직관에 대해 지성적 범주가 적용될 수 있도록 요구되는 매개 표상이 바로 도식이다.** 칸트에 따르면 이러한 도식은 곧 선험적 시간 규정이어야 하는데, 시간은 보편적이며 아프리オリ적 규칙에 의거하므로 지성적 범주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감각적으로 인지되는 모든 것의 경험적 표상에 동반된다는 점에서 현상적 성격을 가지는 매개 표상이기 때문이다.

칸트는 “모든 직관들은 연장적 크기들이다.”***라는 양의 도식, 곧 직관의 공리를 제시한다. 직관의 공리에 따르면 모든 경험적 직관은 일정한 크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칸트는 특히 시간을 그 예시로 든다. “제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 나는 한 순간에서 다른 순간으로의 순차적 진행을 생각하며, 이 경우 모든 시간 부분들과 그것의 덧붙임에 의해 일정한 시간 크기들이 산출된다.”**** 즉 어떠한 현상의 시간적 측면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그 현상이 일정한 크기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은 그 본성상 계측적이다. 동시에 시간은 아무리 나누더라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의 시간 단위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시간은 연속적이며, 시간을 부분으로

* 대표적으로 임마누엘 칸트, 『순수이성비판 1』, 백종현 역, 아카넷, 2006, A204/B249에서 칸트는 시간적 인과관계를 통해 작용, 힘 개념과 같은 뉴턴 물리학의 개념을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하 『순수이성비판』에 대한 모든 인용은 초판/재판 쪽수를 병행하여 표기한다.)

** 위의 책, A139/B177-178.

*** 위의 책, A162/B202.

**** 위의 책, A163/B203.

나누더라도 항상 시간이 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현상이 시간 속에 있으려면 일정한 국면에 따라 현상이 변화하는 시간의 계기성과 두 가지 구별되는 현상이 같은 시점에 공존하는 동시성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체(substratum)가 필요하다. 칸트에 따르면 기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현상의 모든 변화에 대해 고정적이며 그 양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도 않는 실체(Substanz)이다.** 그런데 현상에 대한 표상을 가능하게 하는 아프로리틱 조건이 바로 시간이었으므로, 이 실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시간이다. 따라서 시간은 그 자체로는 모든 현상적 변화에 대해 고정불변한 무한한 하나의 연속체와도 같다.

몇몇 실체가 발생하고, 다른 몇몇은 소멸한다면, 그 자체가 시간의 경험적 통일성의 유일한 조건을 폐기하는 것이겠다. ... 왜냐하면 오로지 하나의 시간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 안에서 모든 서로 다른 시간들은 동시적으로가 아니라, 서로 잇따라 놓여야만 하는 것이다.***

복수의 시간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만일 있더라도 항상 겹치지 않고 하나의 시간의 일부를 이루는 하위 시간으로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칸트의 시간론에서도 고전적 시간론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제시한 계측가능성, 연속성,

* 위의 책, A169/B211.

** 위의 책, A182/B224.

*** 위의 책, A188-189/B231-232.

균일성을 확인해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

III. 에피쿠로스주의적 시간론 개괄

■ 반면 에피쿠로스주의에서는 이러한 고전적 시간론에 반하는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난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시간에 대한 선개념(prolēpsis)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간은 단지 시간을 켤 때 사용하는 수단인 낮과 밤, 느낌과 무감각, 운동과 정지 같은 감각적 인상, 곧 명증한 것(enargēma)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탐구될 수 있다.*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의 진술에 따르면 선개념은 “마음에 축적된 보편적 관념(noēsis)”**이면서 “외부로부터 자주 감각에 나타나는 것에 대한 기억”***, 곧 축적된 감각적 경험을 바탕으로 추상된 개념이다. 이러한 정의는 감각이 가장 확실한 지식이며 다른 모든 것은 감각으로부터 파생된 부차적인 요소라는 에피쿠로스주의 인식론의 기본적 대전제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루크레티우스는 시간은 사물의 운동과 정지에서 분리된 자체적인 것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시간에 대한 모든 감각은 사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밝힌다.*****

*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 2』, 김주일·김인곤·김재홍·이정호 역, 나남출판, 2021, 72~73절 (361~363쪽). (이하 모든 인용에서 절을 번역본 쪽수와 병기한다.)

** 위의 책, 33절 (338쪽).

*** 같은 책.

**** 위의 책, 38절 (342쪽).

***** 루크레티우스,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강대진 역, 아카넷, 2012, 1:459~463 (59쪽). (이하 모든 인용에서 권·행수를 번역본 쪽수와 병기한다.)

에피쿠로스와 루크레티우스의 시간에 대한 논의는 공통적으로 시간이 자체적인 개념적 실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사물의 작용을 통해서만 탐구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러한 시간에 대한 규정은 얼핏 보기에는 시간을 운동의 수로 정의한 아리스토텔레스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시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한 반면, 에피쿠로스주의에서 이러한 정의는 시간에 대한 선개념을 수립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거부된다. 시간은 단지 사물의 우연적 속성(symptōma; eventa)으로서만 논의될 수 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외각 천구의 운동이라는 가장 보편적인 시간의 기준을 통해 시간의 균일성을 입증하려 하는 반면, 에피쿠로스주의적 시간론에서는 그와 같은 단일한 기준을 발견할 수 없고 단지 각각의 사물의 운동 혹은 정감의 왕래를 기준으로 삼는 한에서 시간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 더불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물의 운동과 관련해서만 시간이 정의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에피쿠로스의 경우 운동과 정지, 정감과 무감, 낮과 밤과 같은 대립쌍의 교차를 통해 시간을 정의한다.* 그리하여 시간은 무한히 지속되며 연속적인 천구의 운동이 아닌 낮-밤, 정감-무감, 운동-정지라는 사건의 파열적 연쇄를 통

* 물론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시간이 운동의 척도이기도 정지의 척도이기도 하다고 기술한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으로 정지 상태를 언젠가 운동할 수 있는 잠재태로 간주하는 한에서 성립한다는 점에서 시간을 근본적으로는 운동의 척도로 보고 있는 것과 같다고 판단할 수 있다. (Aristotle, *Physics: Books III and IV*, trans. Edward Husse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221b7-221b22 (pp.48~49).) 모렐(2002)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 시간론에서 정지의 측정은 운동의 측정의 결과로, 운동의 측정에 따른 시간에 대한 전범적 정의의 이차적 부산물과도 같다. (Pierre-Marie Morel, "Les Ambiguïtés de la Conception Épicurienne du Temps", *Revue Philosophique*, 2(2002), p.206 n. 7.)

해서만 개별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예컨대 낮이 밤으로 바뀌고, 어떤 감정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물체가 운동하다가 정지하는 사건의 변화를 시간으로 이해하고, 시간을 일, 월, 년과 같은 공통의 척도를 통해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불연속적인 시간에 대한 발상으로 연결된다. 결론적으로 에피쿠로스와 루크레티우스의 시간에 대한 언급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론으로 대표되는 기성적인 계측가능한 보편적이면서 연속적인 단일 시간의 이념을 거스르는 대안적 시간론에 대한 착상을 함축한다.**

* Morel, art. cit., p.207.

** 에피쿠로스주의적 시간론의 독특성에 대한 논의는 기존 연구들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모렐(2002) 외에도, 허친스(2022)는 루크레티우스의 시간이 운동 중인 물체에 대한 인간적 지각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현행의 원자 운동 형태만큼 많은 시간 척도와 시간성이 있을 수 있다는 다중적 시간의 이념을 허용한다고 주장한다. (Richard Hutchins, “Lucretius’ theory of temporality: *Aetas in de Rerum Natura*”, in Richard Faure & Simon-Pierre Valli & Arnaud Zucker(eds.), *Conceptions of Time in Greek and Roman Antiquity*, Berlin: De Gruyter, 2022, p.80.) 휘시아니(2000) 또한 루크레티우스의 시간을 사물의 형성과 운동을 한계짓는 기간이자, 보편적 영원과 차별화되는 사물의 지속(durée)과 같다는 점에서 다중적이라고 주장한다. (Sabine Luciani, *L’éclair immobile dans la Plaine: Philosophie et Poétique du Temps chez Lucrèce*, Louvain: Édition Peeters, 2000, p.86.) 괴리(2012)의 연구는 단일한 하나의 자연적 시간 아래에 모든 시간을 배열하고자 시도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과 달리, 에피쿠로스의 시간론이 감각적으로 명증적인 다양한 것들 사이의 유비를 통해 지속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되며 각각의 감각적인 것들로부터 나오는 시간은 서로 비교 불가능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다중적 시간의 이념에 합치한다고 생각된다. (Marianne Gœury, “L’Absence de Préconception du Temps chez Épicure: Lecture de la Lettre à Hérodoté, 72–73”, *Philosophie Antique*, 12(2012), pp.105~106 & p.110.) 그러나 모든 연구들이 본문에서 명시된 에피쿠로스주의적 시간의 비균일성, 불연속성, 계측 불가능성에 동조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진(2016), 코줄-자슬라프스키(1980) 등은 루크레티우스의 시간이 연속적이라고 주장한다. (Pamela Zinn, “Lucretius on Time and Its Perception”, *Kriterion*, 30/2(2016), p.126. Françoise Caujolle-Zaslowsky, “Le Temps Épicurien est-il atomique?”, *Les Études Philosophiques*, 3(1980), p.306.) 또한 휘시아니(2000)와 번스(1978)의 경우는 에피쿠로스와 루크레티우스의 시간론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에피쿠로스에 비해 루크레티우스가 시간의 감각적 측면을 강조하였다고 서술한다. (Luciani, op.cit., p.80. Gisela Berns, “Time and Nature in Lucretius’ *De Rerum Natura*”, *Hermes*, 104/4(1976), p.477.) 그러나 이러한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본 논문의 목적에 해당하는 근현대 철학자들의 에피쿠로스 원자론 재해석에 대한 탐구와는 구별되는

Ⅳ. 근현대 철학자들의 해석

■ 그러나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의 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들은 너무 함축적이며 모호하기에 이 시간이 원자론의 전체 체계 안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마련해 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에피쿠로스주의적 시간의 혁신적 면모는 후대 철학자들의 원자론 해석에서 원자론의 전체 구도를 해명하는 것에 있어 핵심적인 길잡이와도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후대 철학자들의 에피쿠로스주의적 원자론에 대한 해석에서 시간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에피쿠로스주의적 시간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현실화된 양상을 탐구하는 것에 있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 탐구 대상으로 삼는 근현대 철학자들은 마르크스, 들뢰즈, 세르이다. 에피쿠로스주의적 원자론에 대한 해석을 수행한 근현대 철학자들은 이외에도 더 있지만, 이 세 철학자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들이 특히 각자의 고유한 사상적 입장에 맞춰 에피쿠로스주의적 시간론의 탈고전적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경우 학위논문 『데모크리토

고대 철학적 탐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에피쿠로스주의적 시간론에 대한 본 논문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존재한다는 것의 제시로 논의를 제한하고자 한다. 에피쿠로스와 루크레티우스의 차이의 경우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시간에 대한 논의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앞으로 다룰 근현대 철학자들이 모두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에피쿠로스주의'로 기술하였다.

*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 근현대 철학자들에는 대표적으로 베르그손, 바슐라르, 알튀세르 등이 있다. 베르그손의 경우 루크레티우스에 대한 저작을 남겼지만 해당 저작에서 루크레티우스가 필연성을 옹호했다는 점을 들어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베르그손의 루크레티우스 해석이 본 논문에서 다루는 시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보여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Bill Ross, "Michel Serres,

스와 에피쿠로스 자연철학의 차이』에서 헤겔 변증법의 방법론에 의거하여 시간이 에피쿠로스주의적 원자론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다루고 있고, 들뢰즈의 경우 통상적 시간에 대비되는 잠재적 국면에서의 매우 작은 시간적 간격에서의 매우 빠른 속도를 사물의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요건으로 다룬다. 세르의 경우 구조적 인식론이라는 전제에 의거하여 에피쿠로스주의적 원자론에 대한 총체적 해설을 다중적 시간론으로 드러내고 있다.

1. 마르크스의 해석

마르크스에 따르면 에피쿠로스주의적 원자론의 시간은 “현상의 절대적 형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가 에피쿠로스주의적 원자론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하는 변증법적 구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에피쿠로스의 원자론은 모든 사물의 궁극적 원리(archē)가 원자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감각적으로 파악되는 가시적 사물들로부터

Henri Bergson and “Retardation”, in Reinhold Clausjürgens & Kurt Röttgers(eds.), *Michel Serres: Das vielfältige Denken*, München: Willhelm Fink, 2020, p.177.) 바슐라르의 분석은 고대 원자론의 구체적인 개념들에 주목하기보다는, 직관과 추상 사이의 대립에 의거하는 현대과학적 원자론을 향한 변증법적 발전의 한 단계로 고대 원자론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고대 원자론의 시간론에 대한 재해석을 다루는 본 논문의 논지 바깥에 있다. (Nina Power, “Bergson contra Bachelard”, *Angelaki*, 11/3(2006), pp.119~120.) 알튀세르의 경우 「마주침의 유물론이라는 은밀한 흐름(Le Courant souterrain du Matérialisme de la Rencontre)」(1982)에서 무질서로부터 우연성에 의한 사물의 출현을 해명하는 ‘독특한 유물론의 전통’이라는 철학사적 전통을 제안하고 고대 원자론자들, 마키아벨리, 루소, 스피노자, 하이데거 등을 그 전통에 속한 자들로 조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시간의 측면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논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 카를 마르크스,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자연철학의 차이』, 고병권 역, 그린비, 2001, 101쪽.

원자를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감각적 사물과 원리적 원자 사이의 모순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이때 동일한 문제에 대해 감각을 주관적 상상의 산물로 간주함으로써 진리의 영역에 원자만을 남기는 데모크리토스와 달리, 에피쿠로스는 감각을 모든 지식의 기반인 “객관적 현상”^{*}으로 본다. 따라서 원자와 감각 모두 객관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에피쿠로스 원자론에서 양자 사이의 모순은 해소되지 않지만, 마르크스는 오히려 이러한 모순 관계를 헤겔 철학에 착안하여 변증법적 도약의 추동력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변증법의 요지는 모순된 상태를 오류가 아닌 모순된 양자를 포괄하는 보다 상위의 차원으로 지양(aufheben)시킬 수 있을 계기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헤겔은 변증법적 도약의 요체로 자기의식(Selbstbewußtsein)에 집중하는데, 자기의식은 대상과 자신을 모두 자기 자신으로 간주하는 유아론적인 국면에서 모든 다른 타자와의 관계를 부정함으로써 스스로의 자립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기의식의 차원에서 부정되어야 할 타자는 결국 자기 자신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식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보다 상위의 차원인 자기의식 간의 인정 투쟁, 나아가 이성의 단계로 지양될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는 각각의 원자들이 자신의 본질로부터 벗어난, 즉 소외된 상태에 놓인 자기 자신을 부정함으로써 스스로를 보다 상위의 단계에 해당하는 원자의 결집체인 사물로 지

* 위의 책, 39쪽.

**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정신현상학 1』, 김준수 역, 아카넷, 2022, 179쪽.

*** 신은화, 「에피쿠로스 원자론의 모순성에 대한 마르크스의 통찰」, 『사회와 철학』, 32(2016), 281~282쪽.

양하는 자기의식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며 에피쿠로스 원자론 전체를 변증법적 과정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사고방식이 바로 우연(*tychē*; Zufall)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데모크리토스 원자론이 이미 존재하는 경험적 사물 간의 연관관계를 수립하는 필연(*anankē*; Notwendigkeit)에 집중하는 반면, 에피쿠로스주의 원자론은 자연 현상을 “단지 가능한 것, 사유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대상의 경험적 현존 여부에 구애받는 대신 “자연의 모든 객관적 실재성을 지양”^{**}, 즉 얼마든지 변화가능한 추상적 가능성(*abstrakte Möglichkeit*)을 내포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대비는 필연적 인과 법칙으로 이루어진 자연 법칙을 수립하는 것이 원자론이라고 이해하는 데모크리토스를 근대 과학의 결정론적 이상의 현현으로 간주하는 자로, 에피쿠로스의 경우 자연의 결정론적 법칙에 대해 불신으로 일관하고 이를 거스를 수 있을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로 여기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증법적 구도에 의거할 때, 원자들이 외관상으로 취하고 있는 운동 양태(현존적/질료적 측면)와 원자들의 본래 정체인 개별적 원자(원리적/형식적 측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순은 지

* 카를 마르크스, 앞의 책, 46쪽.

** 위의 책, 48쪽.

*** 위의 책, 45~46쪽. 매카시(1990)에 따르면 이러한 지점에서 마르크스에 의해 파악된 에피쿠로스주의 원자론은 데모크리토스, 그리고 데카르트와 흄스로 대표되는 기계론적이고 경험주의적인 유물론과 대비되는 셸링의 독일 관념론적 자연철학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George E. McCarthy, *Marx and the Ancients: Classical Ethics, Social Justice, and Nineteenth-Century Political Economy*, Savage,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1990, p.29.)

**** Ibid., p.27.

양의 계기로 작용한다. 이러한 모순에 의거한 지양의 과정이 개별 원자의 차원에서, 그리고 원자들이 결집되어 형성한 사물의 차원에서 반복된다. 먼저 개별 원자의 차원에서 이러한 두 측면의 지양 관계는 서로 평행한 채 필연적으로 수직 낙하 운동만을 하던 원자들의 현존 상태가 자신의 개별성에 대한 소외로 간주된 다음, 이에 반하여 수직 궤도로부터 비껴남으로써 자신의 개별성을 되찾게 만들어주는 우연적 편위(clinamen) 운동으로 나타난다.

편위 운동을 통해 원자들은 서로 충돌하지 않던 직선 궤도에서 벗어나 서로 부딪치면서 결집체들을 구성하고, 이 결집체들이 가시적 세계의 사물들을 구성한다. 그런데 편위를 통해 원자들이 개별성을 얻게 되는 것은 “마치 현실적 자연 속에서 시간이 그런 것”*과도 같다. 곧 가시적 사물의 차원에서 시간은 원자의 정체성을 다시 얻게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시간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모든 규정된 현존의 대존재로의 추상과 파괴, 환원”**이다. 시간의 흐름은 결집체라는 질료적 현존으로 인해 자신의 개별성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원자들이 다시 자기의식의 형식적, 즉 대존재적 측면에 해당하는 개별적 원자로 되돌아가는 과정이다. 시간은 감각적 차원에서 원자들이 현존하고 있는 결집체에 대해 원자의 원리적 작용이 부정 작용으로서 가해지는 것과 같으며, 그러한 점에서 “현상계의 절대적 형식”***이 된다.

* 카를 마르크스, 앞의 책, 75쪽.

** 위의 책, 102쪽.

*** 위의 책, 101쪽.

물론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시간이 사물들을 사멸에 이르게 만드는 추동력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시간은 변화하는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변화를 계측하여 산정해낸 수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천체 운동이 시간 속에 있지 않지만 시간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마르크스에 따르면 에피쿠로스의 시간은 감각적 지각과 동일시되며, 감각은 “구체적 자연 안에서는 유일한 판단기준”**으로 “원자들의 세계에서[의] 유일한 판단기준”***인 추상적 이성과 병렬적인 위상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시간은 가변적 현상 세계를 측정하면서도 그 자체는 불변하는 단일 기준이라기보다는 가변적 세계에 귀속된 경험적 자기의식의 감각에 대한 반성의 결과물인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을 판정하는 각각의 자기의식이 개별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에 머무른다는 점에서 시간의 단일하고 보편적인 기준을 할당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게 된다.

이러한 시간의 다중성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간의 단일한 기준으로 상정되었던 천체 운동에 대한 마르크스의 서술에서도 드러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에피쿠로스의 천체는 원자가 자신의 개념에 대한 완전한 자기인식을 이루어, 원자라는 자신의 원

* “시간은 그 자체로는 사멸에 가깝다. 시간은 변화의 수이며, 변화는 현존하는 것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항상 있는 사물들이 시간 속에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한데, 이들은 시간에 의해 둘러싸여 있지 않고, 시간에 의해 측정되지 않고, 이것의 함의는 이들이 시간에 의해 전혀 행위되지 않아 시간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Aristotle, *Physics: Books III and IV*, trans. Edward Husse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221b1–b6 (p.48).)

** 카를 마르크스, 앞의 책, 104쪽.

*** 같은 책. (대괄호는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 같은 책.

리가 구체적 자연 속의 구형으로 실제로 현존하게 되는 현존과 원리가 일치하는 “구체적 개별성”^{*}이 성취된 단계이다. 그러나 천체 현상은 단일한 원인으로 포섭되지 않으며 예측 불가능한 가능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기에 결코 영원불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 “천체들의 영원성은 자기의식의 아타락시아를 방해할 것이므로,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필연적이고 엄격한 귀결이다.”^{***} 아타락시아는 영혼의 고통 없는 안정 상태로, 자기의식이 최종적 완결점으로 여겨졌던 천체에 대해서도 형식적 부정작용을 행하면서 변증법적 구도를 견지할 때 얻어진다. 결국 시간의 기준으로 여길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에피쿠로스주의 원자론에서는 부정된다.

결집체의 해체와 감각적 지각 사이의 동일성은 에이돌라(eidōla; simulacrum)의 작동 양태를 통해 더욱 분명히 제시된다. 에이돌라는 자연적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분리되어 흘러나와 감각기관을 통과하면서 각각의 에이돌라가 나오게 된 사물을 인식하게 해 준다.^{***} 그러므로 “물체들은 자신들이 감각 기관에 의해 현상된 것에 의해 사라진다.”^{****} 시간은 각각의 물체의 운동을 시간적 단위로 계측하는 차원을 넘어 현상계의 물체의 사멸 작용 그 자체를 가리키게 되므로 시간은 더 이상 운동의 수가 아니라 운동 그 자체를 가리키게 된다. 또한 시간이라는 것이 결국 원자 혹은 에이돌라의 허공 속으로의 해체와 동일시된다는 점에서, 시간

* 위의 책, 114쪽.

** 위의 책, 111쪽.

*** 위의 책, 104쪽.

**** 같은 책.

의 최소가 무한 분할 불가능한 원자 혹은 에이돌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시간은 불연속적이다.

2. 들뢰즈의 해석

한편 들뢰즈는 편위 운동이 매우 작은 시간적 간격 속에서 발동된다는 것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들뢰즈는 편위를 무한소적 시간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미분소(différentielle)와 동일시하고, 편위를 차이 그 자체가 현행적 사물로 발현하는 생성작용의 동인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통상적인 선형적이고 연속적인 시간의 배후에 자리하는 계측 불가능하고, 불연속적이고, 다중적인 원-시간이라고 불러도 좋을 잠재적 시간이 편위의 발동 조건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에피쿠로스주의적 원자론에 대해 들뢰즈가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헌은 「루크레티우스와 시뮬라크르(Lucrèce et le simulacre)」이다. 그런데 이 소논문의 원제가 「루크레티우스와 자연주의(Lucrèce et naturalisme)」였다는 것에서 드러나듯, 들뢰즈가 에피쿠로스주의적 원자론을 평가하는 요지는 그것이 자연주의적 이론이라는 것이다. 자연주의란 “다양함의 원리를 다양함 그 자체로 사유하는 것”*으로, 이와 반대되는 것은 자연을 일자, 존재, 전체와 같은 특정한 개념 틀에 의거하여 규정하는 것이다. 자연주

* 질 들뢰즈, 『의미의 논리』, 이정우 역, 한길사, 1999, 424쪽 / p.308 (번역 수정).

의는 자연의 다양성을 “그 고유한 요소들을 총체화하지 않는 합”^{*}인 무한한 합으로 간주함으로써 자연적 요소들이 단일한 범주에 의해 포괄되는 것을 거부한다. 일자와 전체는 무수히 많은 원자들이 허공 속에서 일시적으로 이루는 무정형적인 배열 형태로부터 추상된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동일성이든, 모순이든 세계의 일정한 원리를 제시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세계를 일자, 전체로 상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자연주의를 거스르게 된다.^{**} 이에 따라 들뢰즈는 자기의식의 모순을 원자론의 근본 구도로 상정하는 마르크스의 에피쿠로스주의 원자론 해석과 필연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다양성을 일자나 전체 등의 개념에 의거하지 않고 해명하고자 한 들뢰즈의 시도는 『차이와 반복』의 ‘다양체(multiplicité)’ 개념으로 형상화된다. 다양체는 지성의 개념인 일자나 다자에 해당하지 않는 “본연의 다자 그 자체에 고유한 어떤 조직화”^{***}로, 그런 의미에서 고대 원자론은 “파르메니데스의 존재[일자]를 다양화했을 뿐 아니라 이념(idée)들을 원자로 이루어진 다양체들로 파악했다”^{****}고 평가된다. 일자가 다수의 원자들로 변화하면서 그 원자들 간의 배열 관계가 만드는 것이 바로 다양체이다. 그런데 이 다양체가 표현하게 되는 이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념은 “미분적 요소들 사이에서 성립하는 다양하되 정위 불가능한 연관 체계이고, 이 체계는 실재적인 결합관계들과 현실적인 항 안에서

* 같은 책.

** 위의 책, 426쪽 / p.309.

***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김상환 역, 민음사, 2003, 402쪽 / p.236.

**** 위의 책, 406쪽 / p.238.

구현된다.”* 즉 미분적 요소, 다시 말해 극히 미세한 차이들로 구성된 요소들의 다양체가 곧 이념이며, 요소들 간의 결합관계들이 현실적인 세계의 사물들로 구현된다. 이러한 구도 하에서 이념 다양체의 개별 요소들을 개개의 원자들로 볼 때, 이들은 현실적 결합체들의 이면에 있으면서 결합체의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잠재성(virtualité)의 영역에 해당한다.** 그리고 에피쿠로스주의적 원자론에서 원자들이 서로 충돌하여 결합체를 만드는 편위는 미분적 요소들이 현실적 사물들로 구현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에 대응된다.

따라서 들뢰즈의 에피쿠로스주의 원자론 해석에서 요체가 되는 것은 결국 편위가 어떻게 원자들을 결합시켜 현실적 사물을 구성하게 되는지를 해명하는 것이다. 들뢰즈에 따르면 “가로지름[편위]은 이차적인 운동이 아니며 또 어떤 순간, 어떤 장소에서 생산되는 운동의 이차적인 규정도 아니다. 가로지름[편위]은 원자의 방향의 본래 규정이다. 편위는 … 물질의 미분소(différentielle)이다.”*** 루크레티우스에 따르면 편위는 원자들이 “아주 불특정한 시간, 불특정의 장소(incerto tempo, incertisque loci)에서 자기 자리로부터 조금, 단지 움직임이 조금 바뀌었다고 말할 수만 있을 정도로, 비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이차적인 운동, 즉 “수직적 하락에 우연히 변화를 주게 되는 비스듬한 운동”*****

* 위의 책, 405쪽 / p.237.

** 잠재성과 현실성의 관계에 대한 들뢰즈의 해명은 위의 책, 594쪽 / p.358을 볼 것.

*** 질 들뢰즈, 『의미의 논리』, 이정우 역, 한길사, 1999, 428쪽 / p.311 (번역 수정).

**** 루크레티우스, 앞의 책, 2:218-220 (125쪽).

***** 질 들뢰즈, 『의미의 논리』, 이정우 역, 한길사, 1999, 428쪽 / p.311. 루크레티우스, 앞의 책, 2:243-250 (127쪽).

이 아니라 각각의 원자에 대해 최초로 고유한 방향을 부여하는 원자의 본래적인 운동이다. 마르크스의 원자론 분석에서 편위각 원자의 외관상 운동으로 드러나는 원자의 현존 상태에 대한 형식적 부정작용으로 이해되는 것과 같이, 편위는 원자가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상실하고 수직 운동만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를 거스르고 원자에 고유한 방향이라는 최초의 규정성을 부여해주는 동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들뢰즈에서 편위의 규정작용은 자기의식의 부정작용 대신 미분소(différentielle)로 제시된다. 편위를 미분소로 정의하는 것은 앞서 미분적 요소로부터 현실적 사물을 생성해내는 이념 다양체와 에피쿠로스주의적 원자론을 동일시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미분적 요소는 미분소 dx 로 표현되며, 잠재적 차원에서의 차이들을 가리킨다. 미분소 dx 는 0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작지만 0과 동일시되지는 않는 미세한 차이인 무한소(infinitesimal)에 해당한다. 들뢰즈에 따르면 무한소는 현실적으로 실존하는 것이 아니지만, 동시에 0과 동일시될 수 있는 것도 아닌 이념의 잠재적 차원에서의 보편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편자는 일반적 법칙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념의 질서 속에서 최초의 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미규정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에피쿠로스주의의 원자들의 편위와 무한소는 어떤 측면에서 동일시될 수 있는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들뢰즈가 편위의 발동 요건을 분석하는 부분을 살펴보아야 한다. 들뢰즈에

*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김상환 역, 민음사, 2003, 381쪽 / p.222.

따르면 최초의 수직 낙하 중인 원자들이 “유일한 한 방향으로, 그리고 연속적 시간의 최소치 내에서”^{*} 운동하고 있다는 것은 “가장 빠르고 가장 짧은 사유를 표현”^{**}하는 것이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빠름과 느림의 척도는 장애물의 유무에 달린 것으로, 어떤 동체가 마주하는 장애물이 없을수록 그 동체는 더 빠르게 달린다.^{***} 따라서 공허 속에서 충돌하지 않은 채 운동하고 있는 원자들에게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고, 그 원자들은 동일한 거리를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주파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들뢰즈에 따르면 편위는 “연속적 시간의 최소치보다 더 작은 시간”^{****} 속에서 일어난다. 즉 편위는 사유가능한 가장 빠른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 사유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원자들이 움직일 때 일어나는 것이다. 편위의 국면에서 원자들이 비껴나가는 거리 또한 최소 거리 미만이라는 점에서,^{*****} 이 국면은 거리와 속도 모두가 0에 가능한 한 가까워지면서 원자의 운동 양태가 dx , dy 와 같은 통상적 기수가 불가능한 미분소적 차원에 들어서게 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자의 운동 양태가 각각의 원자들이 고유한 방향을 부여받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이 시간은 각각의 원자에 대해 고유하며, 따라서 다중적이라고 할 수 있다.

편위가 일어나는 사유 불가능한 빠르기는 들뢰즈의 최후기

* 질 들뢰즈, 『의미의 논리』, 이정우 역, 한길사, 1999, 427쪽 / p.311.

** 같은 책.

***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앞의 책, 46절 (347쪽).

**** 질 들뢰즈, 『의미의 논리』, 이정우 역, 한길사, 1999, 428쪽 / p.311.

***** 루크레티우스, 앞의 책, 2:243-244 (127쪽).

사유에서 나타나는 ‘무한 속도(vitesse infinite)’라는 개념을 통해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무한 속도는 무한 속도를 포기하고 제한시키는 일반적 법칙에 의거하는 과학과 대비되는 카오스의 특성이다.* 카오스는 내재성의 평면(plan d'immanence), 곧 모든 철학적 개념들의 원천을 드러내는 만물의 원리 그 자체인데, 이 내재성의 평면은 곧 잠재성과도 같다.** 이 내재성의 평면을 포기하고 외생적인 초재적(transcendent) 요소에 의존할 때 무한 운동은 정지한다.*** 따라서 에피쿠로스주의적 원자론은 가장 빠른 편위의 속도와 가장 느린 감각적 표상 사이의 일종의 등급화(gradation)의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무한히 빠른 속도는 잠재성의 질서를 대변하며 원자들을 미분적 요소의 국면에 들어서도록 만들고, 원자론과 이념론의 동일시를 가능하게 한다.

들뢰즈에 따르면 이러한 사유의 가속 상태와 감속 상태 사이의 분열은 동시에 “시간이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분열”*****에 상응한다. 현실적 운동을 측정하는 연속적 시간이 현재를 정의하며, 이 현재는 그저 흐르기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소의 시간보다도 더 작은 시간에 일어나는 잠재적인 것은 순간을 대변하며, 흐르는 대신 한 시점에서 자신의 방향을 보존한다.***** 현실

* 질 들뢰즈 · 펠릭스 가타리,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정임 · 윤정임 역, 현대미학사, 1995, 65~66쪽 / p.45.

** 질 들뢰즈,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박정태 역, 이학사, 2006, 520쪽 / p.180.

*** 질 들뢰즈 외, 앞의 책, 72쪽 / p.49.

**** Melinda Cooper, “Vitesses de l’Image, Puissances de la Pensée: La Philosophie Épicurienne revue par Deleuze et Guattari”, *French Studies*, 56(2002), p.46.

***** 질 들뢰즈,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박정태 역, 이학사, 2006, 524쪽 / p.184.

***** 같은 책.

적 시간이 계속해서 수평 방향으로 흐르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잠재적 시간은 그 가운데 어떤 시점에서 현실적 시간의 흐름을 끊고 수직으로 길게 뻗어가며 자신의 시점에 머무르는 시간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을 감상하면서 그림의 등장인물, 배경, 채색 방법 등을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 시간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불현듯 그 그림의 특정한 인물을 보고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게 되면 잠재적 시간이 발동하여 현실적 시간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잠재적 시간은 현실 중에서 실로 복잡한 과거의 기억이 비자발적으로 추동되는 것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사유 가능한 연속적 시간의 최대치보다 더 긴, 가장 긴 시간이기도 한 것”^{*}이다. 들뢰즈의 언급을 빌리자면, 현실적 시간이 모든 사물이 가지는 흐름을 가리키는 크로노스(chronos)의 시간이라면 잠재적 시간은 그러한 물체적 내용을 벗어나 “직선으로 팽창하는 … 시간의 공허한 순수 형식”^{**}으로서의 아이온(aiōn)의 시간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들뢰즈의 에피쿠로스 원자론 해석은 편위를 이념의 잠재적 원자의 차원과 현실화된 결집체의 차원 사이의 도약으로 해석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은 잠재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구별하는 등급화의 척도로서 원자들의 운동 양태를 기술한다. 그러므로 시간은 동시에 “운동에 수반되는 사건(événement)들의 사건”^{***}이기도 한 것이다. 원자 그 자체의 본성을 변형시키지는 못

* 같은 책.

** 질 들뢰즈, 『의미의 논리』, 이정우 역, 한길사, 1999, 284쪽 / p.194.

*** 위의 책, 438쪽 / p.320. 동시에 이러한 ‘사건의 사건’이 시간이라는 것은 비록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의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고대의 회의주의자 섹스투스 엠피리쿠스(Sextus Empiricus)에 의해 주어

하지만 원자들에 적용될 수 있는 우연적 속성(eventa; symptōma)으로서의 시간은 결코 각각의 원자들의 운동 이외의 독자적인 독립적 척도를 가지지 못한다. 이때 편위의 시간이라는 것은 각각의 원자의 고유한 자기 방향의 설정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단일하지 않다. 다음으로 편위의 시간은 연속의 최소치를 통해 정의되지 않는 미분소적 차원에서만 정의되는 사유 불가능한 시간이며, 현실적 시간과의 단절 속에서 성립하기에 불연속적이다. 또한 0에 한 없이 가까워질 뿐 고정된 수를 통해 정의될 수 없는 미분소라는 점에서 계측 불가능하다.*

진 에피쿠로스의 시간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정의이기도 하다.

- * 이렇게 잠재적 시간으로부터 현실적 시간이 구성된다는 들뢰즈의 해석은, 계량적 시간이 세계와 독립된 하나의 독립된 보편적 틀이 아니라 주위 환경의 외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비선형 동역학의 성취와도 맞닿아 있다. 비선형 동역학은 고정된 운동방정식에 의거하여 물체의 궤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고전 역학과 달리 국소적 환경에서의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어, 각각의 과거로부터 항상 예측 불가능한 현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들뢰즈에게 크로노스의 시간이 항상 현재만이 있는 시간인 반면, 아이온의 시간은 과거와 미래만이 있는 시간이다. (질 들뢰즈, 『의미의 논리』, 이정우 역, 한길사, 1999, 283쪽 / pp.192~193.) 즉 과거와 미래는 지나가거나 도래할 현재가 아니라 현재와 완전히 다른 존재론적 층위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잠재적 과거로부터 현재의 시간이 형성되는 것은 매번 편위의 작용을 통한 생성이 동반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수많은 생성이 누적되어 형성된 현재의 결과물이 계측적 시간임을 알 수 있다. (마누엘 데란다, 『강도의 과학과 잠재성의 철학: 잠재성에서 현실성으로』, 이정우 · 김영범 역, 그린비, 2009, 181~183쪽.) 물론 들뢰즈는 철학이 카오스의 잠재적 측면의 일관적인 면모만을 추려내는 반면, 과학은 카오스로부터 현실화된 사물들의 상태들간의 지시관계를 함수를 통해 나타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양자를 엄밀하게 구별한다. (질 들뢰즈 외, 앞의 책, 170쪽 / p.112) 그러나 동시에 양자는 공통적으로 창조의 조건으로서 ‘알지 못하는 것’을 상징한다. (위의 책, 185쪽 / p.122) 과학과 철학은 각각 잠재대에서 현실적 사물들로 하강하고, 현실적 사물에서 잠재태로 상승하는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면서도 독립되어 있는 두 선이며 과학이 끊임없이 철학의 가능성을 제공하기에 철학은 과학을 필요로 한다. (위의 책, 230~231쪽 / pp.152~153) 그러므로 들뢰즈의 두 가지 시간에 대한 논의가 현대 과학의 동일한 논의를 잠재성으로부터 현실화된 사물들간의 지시관계로 드러나는 비선형 동역학과 짝을 이룬다는 주장이 성립되는 것은 가능하다.

3. 세르의 해석

마르크스의 에피쿠로스 원자론 해석이 시간을 가시적 영역으로 한정했다면, 들뢰즈의 에피쿠로스 원자론 해석은 잠재적 원자의 영역에서의 아이온의 시간을 현실적 결집체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대조하여 나타낸다. 반면 세르의 경우 원자의 운동 양태를 규제하는 서로 다른 복수의 시간적 모형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루크레티우스 원자론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시간은 에피쿠로스주의적 원자론의 주요 국면을 모두 해명할 수 있는 위상을 부여받게 된다.

세르에 따르면 루크레티우스 원자론에 대한 기존의 해석은 고전학적이거나 과학적인 전제에 사로잡혀 양자를 통합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지 못했다. 예컨대 고전학자들이 루크레티우스 원자론을 인문학적 저작으로 보면서 변증법적 유물론이나 루크레티우스의 불안 등을 읽어내려 한다면, 과학자들은 루크레티우스 원자론을 현대 과학의 틀 안에서 해석하면서 ‘현대 과학에 대한 원시적 예견’ 등과 같은 것으로 평가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르에 따르면 두 입장은 루크레티우스의 원자론을 각각 고대와 현대의 입장에서 평가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는 근본적으로 시간을 과거로부터 미래로 나아가기만 하는 직선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에서 오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을 무수히 많은 원자들의 흐름으로 이루

* 미셸 세르, 『해명』, 박동선 역, 숲, 1994, 103쪽 / p.72.

어진 자유롭게 융합하거나 산개할 수 있는 유동적이며 부정형적인 회오리와 같은 것으로 사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시대의 경계, 나아가 분과 학문의 경계를 극복하여 동일한 틀 속에서 루크레티우스의 원자론과 현대 과학을 사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조적 인식론이라는 입장이다. 구조적 인식론은 과학과 문화 사이의 단절을 전제하는 바슐라르의 인식론에 대한 비판을 배경으로 한다.* 바슐라르는 과학적 이론이 무질서한 환경으로부터 과학적 이론의 구성에 알맞는 현상만을 추출해내는 현상기술적(phenoménotechnique)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일상적 경험이나 문화적 요소 일체는 배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지목된다. 그러나 현상기술적 과정을 통해 탄생한 과학은 실험실과 같은 인위적으로 통제된 환경 속에서 정화된 현상만을 바탕으로 하기에 기상 현상이나 브라운 운동 등과 같은 지극히 불규칙적이며 확률적으로만 기술될 수 있는 자연 현상들을 파악하는 것에 실패한다. “날씨는 무질서의 장소이자 예견 불가능한 것의 장소이며 … 실험실과 모든 폐쇄계가 바깥의 난류(turbulence)들로부터 물리학 연구를 보호해 준다. 과학은 그 안에 갇혀 있다.”*** 난류는 유체 역학에서 서로 섞이지 않고 평행하게 흐르는 층류(écoulement laminaire) 상태인 유체의 속도가 증가할 때 층류 가운데에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지 않으며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기술될 수

* 위의 책, 75쪽 / pp.47~48.

** Gaston Bachelard, *Le Nouvel Esprit Scientifique*, Paris: PUF, 1934, pp.12~13.

*** 미셸 세르, 『루크레티우스의 텍스트와 물리학의 탄생: 하천과 난류』, 박성관 역, 디브이파트너스, 2025, 134쪽 / p.86.

없는 소용돌이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바슐라르의 방법론은 객관적 대상의 고정된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 현상을 조작하고 정화하는 주관을 상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단지 각각의 전제에 따라 물리학, 화학 등의 분과 학문만을 성립시키고, 사물 그 자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비판 의식에서 세르가 과학적 이론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과학의 탐구자와 탐구되는 존재자 모두가 대상으로 존재하는 상호객관성(interobjectivité)이 실현되는 연결망(réseau)이다. 이 연결망이 바로 구조이며, 구조는 “정해지지 않은 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의 요소들, 그리고 그 본성이 특정되지 않은 유한한 수의 관계들을 묶어주는 불특정적인 의미작용에 대한 작용적 총체”***로 정의된다. 구조 속에서 과학의 탐구자와 대상은 동등한 자격하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이들이며, 과학은 이렇게 교환되는 정보의 속성을 기술한다. 탐구의 절대적 주관의 심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고전학자의 전제와 과학자의 전제 모두 거부 대상이 되며, 해석의 대상과 주체의 분할은 양자 사이의 공통 구조에 대한 기술로 대체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세르는 루크레티우스 원자론과 현대 과학의 공통 구조를 서술한다. 서술의 매개체가 되는 것은 시간이다. “시간은 각각의 사물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물들 각

* 리처드 파인만 · 로버트 레이턴 · 매슈 샌즈,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 2』, 김인보 역, 승산, 2006, 41~10~41-12쪽.

** Michel Serres, *Hermès II: L'Interférence*, Paris: Minuit, 1972, p.88.

*** Michel Serres, *Hermès I: La Communication*, Paris: Minuit, 1969, p.32.

각이 저마다의 시간을 갖기 때문이다.”* 시간과 사물의 밀접성에 대한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의 언급을 간접적으로 참조하면서, 세르는 시간을 각각의 결집체들의 형성과 해체를 기술하는 틀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 시간은 보편적인 하나의 틀이 아니고, 세 가지의 시간적 모형이 상호작용하면서 각각의 사물의 총체적 시간을 구성한다.** 첫 번째 시간적 모형, 즉 시간관인 고전 역학의 순환적 시간관은 동일한 법칙의 무한한 반복가능성을 긍정하며 운동 방정식에서 시간의 역진을 허용하는 가역성(reversibilité)으로 특징된다. 이는 편위 이전 원자들이 동일한 궤도를 계속해서 낙하하고 있어 어떠한 충돌과 생성도 일어나지 않는 유체 역학의 층류 상태에 대응한다. 그러나 편위의 개입을 통해 층류 상태에 있던 원자들이 각각의 방향으로 비껴나가 서로 충돌하여 무질서한 구름을 이루니, 이것이 곧 유체역학의 난류 상태와 같다.***

난류적 구름 상태에 있던 원자들이 결합하면서 형성하는 소용돌이가 가시적 사물을 구성한다. 그러나 이 사물들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일정 시간 이후 다시 해체되어 최초의 평형 상태로 되돌아갈 운명에 놓여 있다. 이렇게 사물의 쇠퇴를 이끄는 경향성이 열역학적 시간을 구성하며, 이 시간은 원자의 해체인 동시에 엔트로피의 증가라는 일방향적 진행만을 내포하기에 비가역적인 것으로 특징된다.****

* 미셸 세르, 『루크레티우스의 텍스트와 물리학의 탄생: 하천과 난류』, 박성관 역, 디브이파트너스, 2025, 273쪽 / p.169.

** 위의 책, 323쪽 / p.201.

*** 위의 책, 15쪽 / pp.13~14.

**** 위의 책, 136쪽 / p.88.

그러나 현존하는 사물은 일방향적 쇠퇴의 경향성만을 가지지 않고, 그러한 쇠퇴에 반하여 그 과정을 일시적으로 늦추고 안정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보존할 수 있는 음엔트로피적 경향성도 가지고 있다. 음엔트로피는 엔트로피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키는 정보 혹은 에너지에 해당한다. 비록 개별 사물의 차원에서의 음엔트로피의 감소는 항상 세계 전체의 엔트로피의 증가를 야기하기에 총 엔트로피의 증가는 불가피적임에도, 음엔트로피적 경향성은 국소적 사물의 차원에서 정보 교환과 축적을 통해 사물의 보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루크레티우스 원자론에서도 결집체는 일정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부여받는 가운데, 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해체에 이르게 되는 ‘단지 모형’으로 기술된다.** 현존하는 사물은 엔트로피적 시간관과 음엔트로피적 시간관의 복합체이지만, 엔트로피 상승과 하강이 교차함에 따라 사물은 일시적으로 순환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곧 일시적 가역성으로 나타나며 이를 추상할 때 고전 역학적 시간관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세 가지 시간관이 모두 사물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이 해명된다.***

이러한 세르의 시간론은 기존 시간론에 대한 전면적 부정으로 이해된다. 이 시간론은 그 자체로 균일한 시간을 부정하며, 시간관 간의 투쟁과 시간관 사이의 비선형적 도약 과정을 거론한다

* 미셸 세르, 『헤르메스』, 이규현 역, 민음사, 2009², 394~395쪽 / pp.262~263.

** 미셸 세르, 『루크레티우스의 텍스트와 물리학의 탄생: 하천과 난류』, 박성관 역, 디브이파트너스, 2025, 137쪽 / p.88.

*** 세르의 세 가지 시간관에 대한 자세한 논의에 관해서는 최정민, 「세르의 다중적 시간론: 루크레티우스 원자론을 통한 위상학적 시간론의 정초」,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2025 중 III. “세르의 세 가지 시간관”을 볼 것.

는 점에서 불연속적 시간을 드러낸다. 또한 수학적으로 기술될 수 없는 난류를 여러 시간관이 모여 형성된 결정체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시간을 고정된 틀 하에서 수로서 계측되는 것 이상의 역동적이며 능동적인 면모를 가지는 것으로 사유하게 된다.

V. 결론

■ 지금까지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고전적 시간론에 대비되는 에피쿠로스주의적 시간론이 마르크스, 들뢰즈, 세르의 해석에서 어떻게 변용되어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세 철학자들의 해석은 시간을 독립된 보편적인 하나의 틀로서 간주하는 대신 각각의 사물에 귀속된 성질로 간주하고자 하는 에피쿠로스주의적 시간론의 특성을 잘 드러낸다. 또한 세 철학자들의 해석은 공통적으로 단순한 주해에 머무르는 대신 에피쿠로스주의적 원자론을 각자의 고유한 사상적 입장을 드러내기 위한 장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점은 비계측적이고, 불연속적이고, 다중적인 에피쿠로스주의적 시간론의 성격이 각 철학자들의 고유한 시간에 대한 이해와도 합치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동시에 에피쿠로스주의적 시간론은 현대 과학의 시간에 대한 관점과도 맞물릴 수 있다. 시간의 흐름이 물질의 분포에 따라 형성되는 중력장의 밀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나, 플랑크 시간(10^{-44} 초)이라는 시간의 최소 단위로 이루어진 시간양자 크로논(chronon)을 바탕으로 시간의 불연속적 양자 도약

과 시간 파동의 중첩 가능성을 제안하는 양자 중력 이론은 각각 본 논문에서 알아보았던 사물에 따른 시간의 다중성, 그리고 시간의 불연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현대과학의 시간론이 뉴턴으로 대표되는 고전 역학적인 시간에 대한 이해를 벗어난 것과, 에피쿠로스주의적 시간론에 대한 근현대 철학자들의 선호에서 하나의 공통된 학문적 조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에피쿠로스주의적 시간론은 주관적으로 체험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사물의 구성을 규제하는 원리에 가깝다. 따라서 이는 의식의 주관적 체험으로서의 시간과 구별되는 객관적 차원에서 원자들의 교환을 통해 정의되는 시간이라는 또 다른 시간에 대한 사유를 구상해볼 수 있는 계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종원, 「현대물리학의 시간에 관한 존재론적 고찰」, 『신학과사상』, 88(2023), 210쪽 및 215~218쪽. (단, 양자 중력 이론은 현재 실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며 이론적 차원에서만 제안된 이론임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허친스(2020) 또한 루크레티우스의 시간 이론과 상대성 이론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Hutchins, op.cit., p.98.) 익명의 심사위원께서는 이 부분의 서술이 현대과학의 성취와 연결될 수 있다는 서론의 진술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해 주셨다. 필자 또한 현대과학의 시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에피쿠로스주의적 시간론 사이에서 논리적 도출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양자가 전혀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만큼 매우 상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그러한 주장을 이 논문에서 전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필자가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현대과학의 성취와 에피쿠로스주의적 시간론에서 드러나는 시간의 특성에 서로 공통된 지점이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근대적 시간론에 반대되는 시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함께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에피쿠로스주의적 시간 이론을 과학적 성취와의 연관관계 속에서 읽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본 논문의 주 목적은 무엇보다도 에피쿠로스주의적 시간론의 구체적인 성격이 각 철학자들의 해석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에 있다. 그런 이유에서 이 부분의 논의는 이러한 시간론에 대한 탐구가 가질 수 있는 의의를 보다 넓은 관점에서 생각해보기 위한 취지에서 들어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참고문헌

- ◆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정신현상학 1』, 김준수 역, 아카넷, 2022.
- ◆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 2』, 김주일·김인곤·김재홍·이정호 역, 나남출판, 2021.
- ◆ 루크레티우스,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강대진 역, 아카넷, 2012.
- ◆ 리처드 파인만·로버트 레이턴·매슈 샌즈,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 2』, 김인보 역, 승산, 2006.
- ◆ 마누엘 데란다, 『강도의 과학과 잠재성의 철학: 잠재성에서 현실성으로』, 이정우·김영범 역, 그린비, 2009.
- ◆ 미셸 세르, 『해명』, 박동선 역, 술, 1994; *Éclaircissements: Cinq Entretiens avec Bruno Latour*, Paris: Le Pommier, 2022².
- ◆ _____, 『헤르메스』, 이규현 역, 민음사, 2009²; *Hermès IV: La Distribution*, Paris: Minuit, 1977.
- ◆ _____, 『루크레티우스의 텍스트와 물리학의 탄생: 하천과 난류』, 박성관 역, 디브이파트너스, 2025; *La Naissance de la Physique dans le Texte de Lucrèce: Fleuves et Turbulences*, Paris: Minuit, 1977.
- ◆ 신은화, 「에피쿠로스 원자론의 모순성에 대한 마르크스의 통찰」, 『사회와 철학』, 32(2016), 259~289쪽.
- ◆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김진성 역, 이제이북스, 2007.
- ◆ _____, 「자연학」, 유재민 역, 『아리스토텔레스 선집』, 길, 2023, 149~236쪽.

- ◆ 아이작 뉴턴, 『프린키피아』, 박병철 역, 휴머니스트, 2023.
- ◆ 이중원, 「현대물리학의 시간에 관한 존재론적 고찰」, 『신학과사상』, 88 (2023), 194~228쪽.
- ◆ 임마누엘 칸트, 『순수이성비판 1』, 백종현 역, 아카넷, 2006.
- ◆ 질 들뢰즈, 『의미의 논리』, 이정우 역, 한길사, 1999; *Logique du Sens*, Paris: Minuit, 1969.
- ◆ _____, 『차이와 반복』, 김상환 역, 민음사, 2003; *Différence et Répétition*, Paris: PUF, 1968.
- ◆ _____,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박정태 역, 이학사, 2006; “L’actuel et le virtuel”, in Gilles Deleuze & Claire Parnet, *Dialogues*, Paris: Flammarion, 1996², pp.177~187.
- ◆ 질 들뢰즈 · 펠릭스 가타리,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정임 · 윤정임 역, 현대미학사, 1995; *Qu’est-ce que la Philosophie*, Paris: Minuit, 1991.
- ◆ 최정민, 「세르의 다중적 시간론: 루크레티우스 원자론을 통한 위상학적 시간론의 정초」,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2025.
- ◆ 카를 마르크스,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자연철학의 차이』, 고병권 역, 그린비, 2001.
- ◆ Annas, Julia, “Aristotle, Number, and Time”, *The Philosophical Quarterly*, 25/99(1975), pp.97~113.
- ◆ Aristotle, *Physics: Books III and IV*, trans. Edward Husse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 ◆ _____, *Physics*, trans. C. D. C. Reeve,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Company, 2018.
- ◆ _____, *De Caelo*, trans. C. D. C. Reeve,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Company, 2020.
- ◆ Bachelard, Gaston, *Le Nouvel Esprit Scientifique*, Paris: PUF, 1934.
- ◆ Berns, Gisela, “Time and Nature in Lucretius’ “De Rerum Natura””,

Hermes, 104/4(1976), pp.477~492.

- ◆ Caujolle-Zaslowsky, Françoise, “Le Temps Épicurien est-il atomique?”, *Les Études Philosophiques*, 3(1980), pp.285~306.
- ◆ Coope, Ursula, *Time for Aristotle: Physics IV.10-1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 Cooper, Melinda, “Vitesses de l’Image, Puissances de la Pensée: La Philosophie Épicurienne revue par Deleuze et Guattari”, *French Studies*, 56(2002), pp.45~60.
- ◆ Gœury, Marianne, “L’Absence de Préconception du Temps chez Épicure: Lecture de la Lettre à Hérodoté, 72-73”, *Philosophie Antique*, 12(2012), pp.91~113.
- ◆ Hutchins, Richard, “Lucretius’ theory of temporality: *Aetas* in *de Rerum Natura*”, in Richard Faure & Simon-Pierre Valli & Arnaud Zucker(eds.), *Conceptions of Time in Greek and Roman Antiquity*, Berlin: De Gruyter, 2022, pp.79~100.
- ◆ Luciani, Sabine, *L’éclair immobile dans la Plaine: Philosophie et Poétique du Temps chez Lucrèce*, Louvain: Édition Peeters, 2000.
- ◆ McCarthy, George E., *Marx and the Ancients: Classical Ethics, Social justice, and Nineteenth-Century Political Economy*, Savage,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1990.
- ◆ Morel, Pierre-Marie, “Les Ambiguïtés de la Conception Épicurienne du Temps”, *Revue Philosophique*, 2(2002), pp.195~211.
- ◆ Power, Nina, “Bergson contra Bachelard”, *Angelaki*, 11/3(2006), pp.117~123.
- ◆ Roark, Tony, *Aristotle on Time: A Study of the Phys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 ◆ Ross, Bill, “Michel Serres, Henri Bergson and ‘Retardation’”, in Reinhold

Clausjürgens & Kurt Röttgers(eds.), *Michel Serres: Das vielfältige Denken*, München: Willhelm Fink, 2020, pp.175~192.

- ◆ Serres, Michel, *Hermès I: La Communication*, Paris: Minuit, 1969.
- ◆ _____, *Hermès II: L'Interférence*, Paris: Minuit, 1972.
- ◆ Zinn, Pamela, "Lucretius on Time and Its Perception", *Kriterion*, 30/2(2016), pp.125~151.



Epicureanism as the Alternative Theory of Time: Focusing on its Contrast with the Classical Theory of Time and its Modern Variations

Choi, Jeongmin

(Sogang University · Philosophy · Doctoral Student)

■ This article aims to concretise the epicurean theory of time by contrasting it with the classical theory of time and complementing it in regard of its interpretations by Marx, Deleuze, and Serres. First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assical theory of time are measurability, continuity, and uniformity. Secondly, based on the statements of ancient atomists, the epicurean concept of time is discovered within the atomistic outline through interpretative works of modern philosophers. Thus, the characteristics of epicurean time are revealed as immeasurability, discontinuity, and multiplicity. Moreover,

epicurean time is congruent with the new scientific idea of time, which shows the potentiality of the new concept of time for the contemporary era.

Keywords: Epicureanism, atomism, time, multiplicity, discontinuity, immeasurability, Marx, Deleuze, Serres

- 투고 접수 2025. 11. 20.
- 심사 완료 2025. 12. 16.
- 게재 결정 2025. 12. 26.